

석유 최고가격제 통했나...지역 주유소 기름값 상승 제동

광주·전남 휘발유 1천819원·1천843원대 ↓
경유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국제유가 지난주보다 35달러 상승 유지

정부가 최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고공행진을 보였던 광주·전남 지역 주유소 기름
값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19.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3일 1천834.9원보다 15.5원 하락한
수준이다. 경유 역시 하루만에 가격이 내려 ℓ당
1천821.1원을 기록했다. 다만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 역전 현상은 일반적으로 전쟁 등 국제 정
세가 불안정해질 때 나타난다. 전쟁이 발생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
향이 있는데 이는 수요는 크게 줄지 않는 반면
원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
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주말인 15일 광주 북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기름값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42.1원으로 전날보다 3.2원 내렸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843.6원으로 4.4원 하락했다. /조영권 기자

전남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ℓ당 1천8
56.0원에서 1천843.1원으로 12.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 역시 ℓ당 1천867.9원에서 1천849.3원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지역 주유소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은

최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분석
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판
매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이를 안정

시키기 위해 지난 13일 자정을 기해 '석유 최고가
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은 보통 휘발
유 ℓ당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ℓ당 1천713원, 실
내등유 ℓ당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됐다. 앞으로

는 중동 지역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 등을 고려해 2
주 단위로 최고가격이 재지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주유소 기
름값도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42.1
원으로 전날보다 3.2원 내렸다. 경유 가격 역시
ℓ당 1천843.6원으로 전날보다 4.4원 하락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 주유
소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65.2원으로 전날보다 2.9원 내렸
으며 평균 경유 가격은 16.2원 하락한 ℓ당 1천85
4.6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중동
산유국의 감산 본격화 소식 등의 영향으로 상승
세를 보였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
락 비축유 방출 합의 등이 이뤄지면서 상승 폭은
일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
다 34.6달러 오른 배럴당 123.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5.3달러 상승한 126.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7.5달러 오른 176.5
달러로 집계됐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안태호 기자

농어촌공, 농지임대수탁사업 이용객 편의 높인다

공공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서비스
서류 제출부터 전 과정 간소화 효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를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
영체 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먼저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
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 서류 8종을 간편하
게 제출할 수 있다.

필수 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 초본, 농업경
영체 등록확인서, 국제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
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천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 시간 또한 크게 줄었다는 평이다.

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찾
아 여러 차례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했다.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낮은 고령 농
업인을 위해 디지털 창구(태블릿)를 마련하고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14만2천여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
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으며, 간편한 서
비스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도 쉬워졌다.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

친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다.

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계약 데
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이 품질관리원에 방문하
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
할 수 있게 했다. 공사에서 계약을 마친 뒤 농산
물품질관리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농업인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도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을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
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임
대수탁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
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남광주농협,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상 수상

지역 사회 발전 기여 공로

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은 15일 "지난 13일 농
협광주본부 중회의실에서 2025년 위더스(With-
Us) 상에 남광주농협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은 김철회 NH농협손해
보험 부사장, 문익주 광주총국장 등이 참석해
이영종 남광주농협 조합장에게 상패를 전달했
다. <사진>

위더스상은 조합원과 함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농업인 실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농협의 권

위 있는 상이다.

남광주농협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지역 농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인
실익증대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회 부사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내
외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조합원의 건강
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준 남광주
농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 손해보
험과 더욱 협력해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보성군** 광고문의 : 062)650-2099